

주요 전시유물 설명

1. 왕실 여성의 위계 체제를 갖추다

왕비는 내명부의 수장으로서, 위로는 왕실 어른들을 섬기고 아래로는 품계를 받은 궁중 여성들인 내명부를 지도하여 왕실의 권위와 질서를 확립하였다. 왕비와 세자빈, 후궁들은 왕실 내의 엄격한 위계질서 아래 있었으며 각각의 지위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도 다르고 거주하는 곳과 입는 것, 먹는 것 등에도 차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여성들이 크고 작은 의식이 있을 때 입었던 예복인 원삼(圓衫)의 경우 황후가 황색, 왕비가 홍색, 세자빈이나 빈은 자적색(紫赤色), 왕녀·대군부인·군부인 등은 녹색 원삼을 착용하였다.



<영친왕비 홍원삼, 20세기 초, 중요민속문화재 제265호>



<의친왕비 녹원삼, 20세기 초, 경운박물관>



<(좌)소내교 인장 (우)내교 인장, 조선~대한제국>



<(좌)소내교 인면 (우)내교 인면>

2. 영광의 자리에 오르다

조선의 왕비는 ‘가례’를 통해 왕실의 가계(家系)를 잇고 사직과 종묘를 만드는 매우 신성하고도 중요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받았다. 왕과 왕비의 가례는 간택(揀擇) 절차를 거친 후, 납채(納采, 신부 측에 청혼)·납징(納徵, 신부집에 혼인 예물을 보냄)·고기(告期, 혼인 날짜를 알림)·책비(冊妃, 왕비 책봉 의식)·친영(親迎, 왕이 직접 왕비를 맞이하러 감)·동뢰(同牢, 왕과 왕비가 함께 술을 나누는 잔치 의식)의 ‘육례(六禮)’에 따라 행해졌다.



<경종비 선의왕후 왕비 책봉 시 받은 금보>



<경종비 선의왕후 왕비 책봉 시 받은 교명>



<경종비 선의왕후 왕비 책봉 시 받은 옥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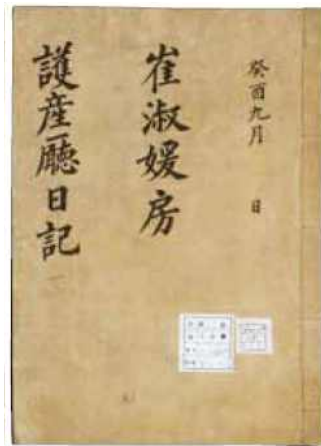
<교배석(交拜席), 19세기~20세기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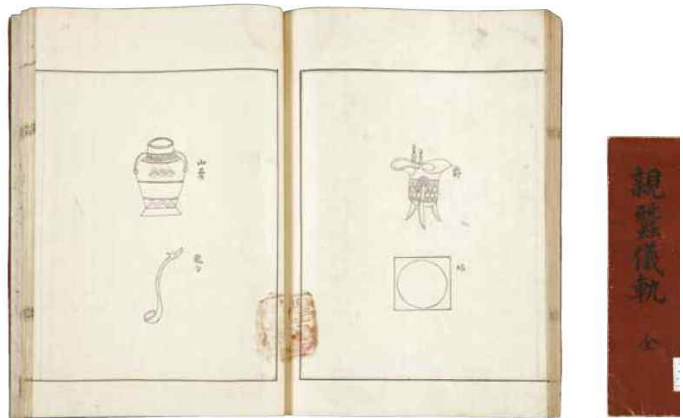
<동자상(童子像), 조선>

3. 역할과 임무를 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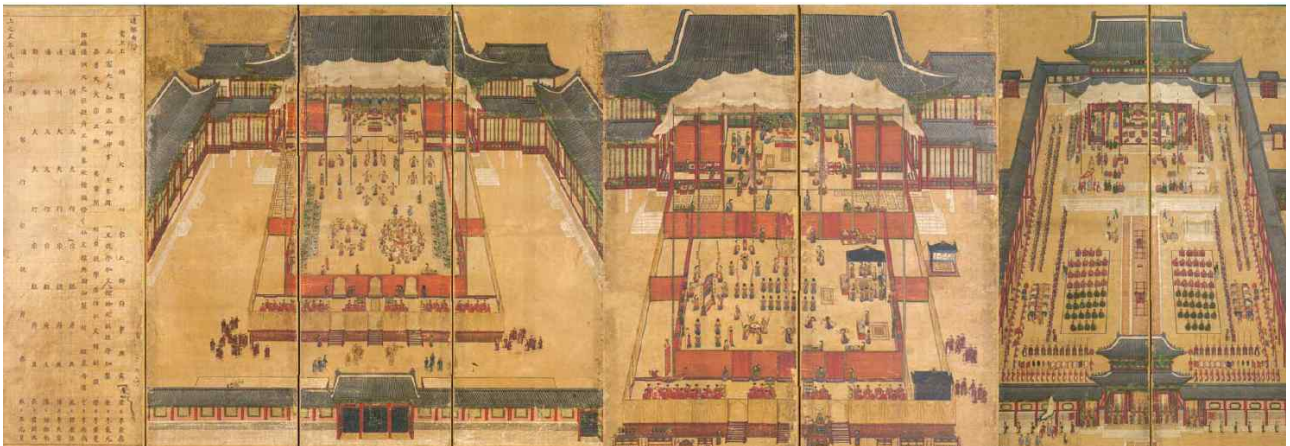
조선의 왕비는 교육을 통해 법도를 익히고 왕실 내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아들을 낳아 왕위를 잇게 하는 것은 왕실의 안정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왕비와 후궁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왕비는 세자빈과 후궁들을 이끌고 친잠례(親蠶禮)를 주관하며 몸소 양잠을 해 보임으로써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기도 하였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왕비는 국모의 자리에서 물러나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통해 한시적으로 국정을 돌보며 미성년의 왕이 국정 수행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보좌하였다.



<호산청 일기, 조선, 1693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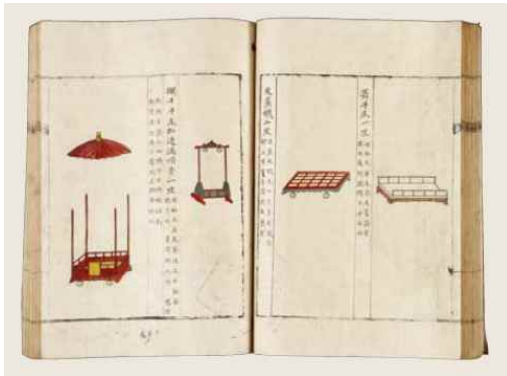
<친잠의궤, 조선, 176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무진진찬도병, 조선, 1868년, LA County Museum of Arts>

4. 생전의 권위를 유지하다

왕비가 세상을 떠나면 국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국장(國葬)으로 장례가 진행되었다. 대개 상을 당한 지 약 5개월 뒤에 발인하여 장례를 지냈으며, 장례가 끝난 뒤 신위를 모시고 궁궐로 돌아와 혼전(魂殿)에 봉안하고 삼년상을 지냈다. 삼년상을 마친 뒤 신위는 종묘에 부묘되어 엄숙한 제례의 대상이 되었다. 국왕의 정식 부인이 아닌 까닭에 종묘에 신주를 모실 수 없었던 후궁들 가운데 영조의 어머니 숙빈(淑嬪) 최씨(1670~1718년)처럼 그 아들이 즉위 또는 추존(追尊)을 통해 왕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사당을 세워 종묘와 같이 영구적으로 제사를 올리기도 했다.



<철인왕후국장도감의궤, 조선, 1878년>



<영조가 종묘를 배알한 감회를 적은 현판, 조선, 1764년>



<육상궁·연호궁 감실(龕室)>



<육상궁에서 사용한 상준(象尊)과 희준(犧尊)>

5. 기품을 더하는 의복과 장신구

왕실 여성의 복식은 아름다움뿐 아니라 품위와 권위를 드러내고, 왕실의 엄격한 법도에 따라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평상시 궁중에서 왕실 여성은 소례(小禮)복인 당의(唐衣)와 스란치마를 입었다. 그리고 머리의 형태를 고정하거나 장식하기 위해 꽂는 여러 가지 형태의 비녀와 저고리 고름 또는 허리끈에 차는 노리개, 주머니 등으로 아름다움과 기품을 더하였다.



<당의(唐衣), 20세기 초, 중요민속문화재 제265호> <남색 스란치마, 20세기 초, 중요민속문화재 제265호>



<진주두루주머니(珍珠狹囊), 20세기 초, 중요민속문화재 제265호>



<당혜(唐鞋), 20세기 초, 중요민속문화재 제265호>



<노리개(佩飾), 20세기 초, 중요민속문화재 제265호>



<주칠삼층경대(朱漆三層鏡臺), 20세기 초, 중요민속문화재 제265호 >

6. 왕실 여성의 여가활동과 신앙생활

왕실 여성들은 독서와 자수 등으로 여가를 보내는 가운데 궁궐 밖에 있는 친인척들과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종교 생활도 왕실 여성들의 삶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특히 불교는 현실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의지처였다. 왕비와 후궁, 공주와 옹주 등 왕실 여성들은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대규모 불사(佛事)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며, 그렇게 조성된 불화와 불상, 불경 등은 오늘날까지 전해져 당시의 높은 예술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전 순명황후 한시 서병(傳 純明皇后 漢詩 書屏), 19세기 말~20세기 초>



<오백나한도(五百羅漢圖), 조선, 1562년, LA County Museum of Art>

7. 왕비와 후궁들의 경제생활

왕비와 후궁들은 공식적인 진상(進上)과 공상(供上)을 통해 의식주를 해결하는 한편, 별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왕실의 사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내수사(內需司)는 왕비와 대비의 주된 수입원 가운데 하나였으며, 용동궁(龍洞宮), 어의동궁(於義洞宮) 등의 왕실 궁방을 통해서도 재산을 관리하였다. 후궁들의 경우에는 각각의 궁방(宮房)을 운영함으로써 사유 재산을 관리하였다.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궁방 인장들은 조선 시대 후궁들의 경제적 기반의 하나였던 궁방의 존재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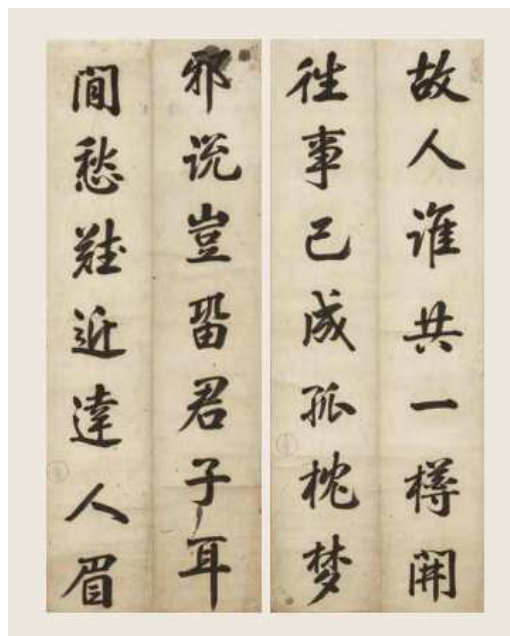
<어의동궁 인장(於義洞宮 印章), 조선, 1844년>



<숙빈방 인장(淑嬪房 印章), 조선, 18세기>

8. 파란만장한 삶의 주인공들

권력의 핵심인 왕실의 구성원으로서 대다수의 왕비들은 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치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왕위 계승 과정에서 빚어진 권력 투쟁에 휘말려 남편과 부모를 잃기도 하고 자신이 서인으로 강등되거나 사사되기도 했다. 왕실 여성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로 인해 비극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 선조의 계비 인목왕후(仁穆王后) 김씨(1584~1632)와 숙종의 계비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1667~1701), 그리고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1735~1815)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파란만장하고도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왕실 여성들이다. 이들의 비극적인 삶은 각각 『계축일기』, 『인현왕후전』, 『한중록』이라는 대표적인 궁중문학 작품들에 투영되어 있다.



<혜경궁 홍씨가 짓고 쓴 한시(惠慶宮 洪氏 御製 御筆 漢詩), 조선, 개인소장>



<서궁일기(西宮日記), 조선, 개인소장>